환경과 인간, 소득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건설에 주력

허 경 만 *전라남도 지사*

국회의원 5선 역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변호인……, 적지 않은 기간동안 정치의 길을 걸으면서 민주·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체득한 허경만 지사는 정치 발전 못지 않게 지역 발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도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하는 등 도민 모두의 보건 복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전남도의 대내외적 성장을 위한 사업의 연구와 추진에 전념하고 있다. 한번 세운 바른 뜻은 굽히지 않는다는 그의 소신에서 전남의 발전된 모습이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 건강하십니까. 먼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계시는 일들이 궁금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국토의 U자형 발전 축의 기저를 이루고 있고, 환태평양 시대로 나아가는 출구에 자리잡고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SOC에 대한 중점 투자와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7개의 고속도로와 목포 신 외항, 무안 국제 공항 건설, 호남선 복선화, 경전선 신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한 외교 사절단 초청, 전남의 문화유산, 2010세계박람회 유치 배경 등을 설명

이와 함께 도 농간·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존의 농·어업 진흥은 물론 관광 문화 산업의 개발 촉진과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첨단산업과 정보산업 유치 노력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1세기 초반에는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 중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저개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과 소득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복지사회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의욕적인 청사진이신데요,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도정 최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꼽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남은 우선 2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도청 이전을 통한 남악 신도시 건설 사업과 2010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남 도청 이전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도민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수 해양 엑스포는 우리 전남이 지닌 천혜의 잠재력을 살려 해양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어 외교 차원에서 BIE(세계박람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서 화합 차원의 광양만·진주권 공동 개발과 남해안 관광 벨트 사업을 통해 국민 화합을 선도하는 지역, 문화와 관광을 새로운 기간산업으로 키워 나가는 문화 예술의 본산지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했던 시책 사업과,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도의 복지 여건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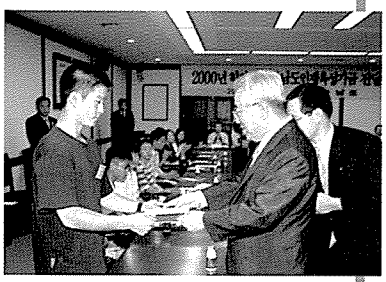
우리 전남의 인구는 216만 명으로서 전국 인구 대비 4.5%에 불과합니다만,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전국의 10.2%, 노인 인구는 7.7%나 되며, 농어촌 인구와 도서 인구가 많아 타 시도보다 복지 수요는 월등하게 높은 반면,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지 정책을 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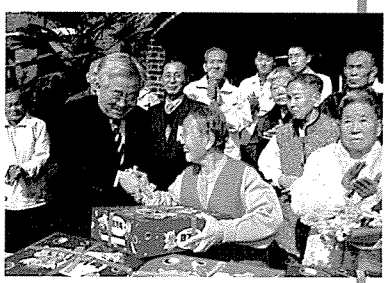
그러나 이처럼 열악한 제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 예산의 17.6%를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하고, 전 공무원의 지혜를 모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원과 자활 기반 조성, 장애인과 노인의 권익 보장, 자라나는 불우 아동의 소외감 해소 및 건전 육성, 여성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남녀평등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95세 이상 장수 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이라든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시각 장애인 소리샘 설치 사업' 등과 같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타 시·도와 차별화 된 복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복지 시설과 인근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시설 거주자의 외로움 해소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 개방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분기별 1회 이상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함께 도민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시행 등 변화하는 복지 상황에 대처하고 도민 만족형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에게 밝은 세상 보여주기 사업과 중증 장애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 재활 기구 나눔 은행 운영, 소년 소녀 가장 및 시설 아동 사회 적응 훈련 등 장애인과 불우 아동의 사회 적응력 배양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과 면담, 전남과 디지비주 간의 교류,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협조 등 논의

▲▲2000년 하반기 인재 육성기금 지원 대상자에 장학금 전달

▲해남읍 선회 노인요양원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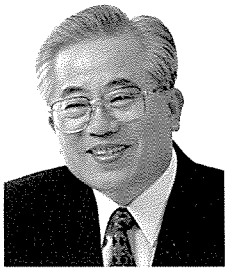
이와 함께 남녀 고용 평등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남녀 고용 평등에 앞장선 모범 기업을 발굴 시상하고, 여성의 리더쉽과 정보화 능력 배양에 힘써 나갈 계획이며,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우리도 사회복지가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사회구조 및 생활 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암·고혈압·당뇨병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난치성 질병과 노령화 추세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의 예방 접종·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도민 건강 진단 등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물질적·정신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적극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거동 불능자, 만성 퇴행성 질환자, 독거 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26천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의료팀과 200여명의 공공 근로 방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건강 진단, 치료, 보건 교육 등과 함께 이·미용, 도배, 가전 제품 수리, 밑반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남 순천고 · 성균관대 법정대 · 서울대 사법대학원 (1956~1965)
◎ 제 2회 사법고시 합격 (1964)
◎ 광주 · 목포 · 인천 · 순천 · 홍성 지검 검사 (1969~75)
◎ 제 10~14대 국회의원 (1978~1995)
◎ 5.17. 사태 이후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변호인 (1980)
◎ IPU 한국 대표 (1984)
◎ 평민당 초대 원내총무(1987), 부총재 (1990)
◎ (통합) 신민당 원내총무 (1991)
◎ 민주당 최고 위원 (1991~1992)
◎ 국회 부의장 (1992~1994)
◎ 한국내외문제연구회 이사장 (1992)
◎ 민주당 상임 고문, 후광(김대중) 문학상 운영위원회 고문, 아 · 태재단 후원회 중앙 위원
◎ 전라남도지사(1995~)

또, 40세 이상 64세 이하 의료 보호 대상자 28천 여명을 대상으로 부인 암, 초음파, 심전도, 위암,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자궁암 3명과 유 소견자 3,400여명을 조기 발견 · 치료 ·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 요원 225명을 정신 보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재가 정신 질환자의 방문 진료 · 상담 ·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도내 6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낮 병동을 이용한 주간 보호(Day care), 정신 건강 증진 교실 운영도 점차 전 보건소로 확대시켜 만성 퇴행성 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재활 능력 배양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이라는 보건 정책의 큰 틀 아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 치료 · 재활 등 생애 주기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의 평생 건강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평소의 소신이나 좌우명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 기회에 독자들에게 좀 공개해 주시지요.

저는 약속을 중히 여기고 일단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마찬가지로 엄격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뜻을 세웠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굽혀서는 안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공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을 중시한다면 우리 사회에 신뢰 기반이 한 걸음 더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64년 사시 합격이 인생 항로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마는 공인으로서는 지난 80년 당시 5 · 18사태와 관련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변호인을 자청한 것입니다.

당시 계엄 하에서 변호를 맡는다는 것 자체만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죽음을 초월한 김대중 선생의 민주 ·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체득하게 된 것이 어려운 시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도지사의 길에 뛰어든 것도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정치 발전 못지 않게 지역 발전을 위해 뛰는 것도 보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남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라남도는 기회가 있는 반면 위기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신 해양 시대의 도래, 문화와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호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저가 농산물 유입, IMF이후 위축된 투자 심리 등은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낙후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도민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소득과 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복지 전남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타지역에 비해 다소 뒤진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대등한 위치에 서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보다 1시간 더 일하고 다른 지역보다 더 친절하고, 다른 업소보다 더 청결하고, 다른 시설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도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민 여러분과 「건강소식」애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